



## 범죄 용어 사용에 따른 기사 보도 프레임

이상동기 범죄·문지마 범죄·무차별 범죄의 차이

**문해민** 동국대학교 법심리연구소 연구원  
**박은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  
**김승현** 동국대학교 융합보안연구소 연구교수

### News Reporting Frames Based on Crime Terminology\*

Differences Among Abnormal Motive Crime, Mudjima Crime, and Indiscriminate Crime

**Hyemin Moon\*\***

(Researcher, Institute of Psychology and Law, Dongguk University)

**Eunseo Park\*\*\***

(Ph.D. Candidate, College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Seunghyun Kim\*\*\*\***

(Research Professor, Convergence Security Research Institute, Dongguk University)

The police have proposed replacing the terms 'mudjima crime' and 'indiscriminate crime' with 'abnormal motive crime.' Both 'mudjima crime' and 'indiscriminate crime' are neither legally nor academically established, and their ambiguous meanings have been criticized for unnecessarily heightening public fear. Despite this policy shift, the media continues to use the term 'mudjima crime.' Given that the public perceives public safety through news articles, the media plays a critical role in shaping a sense of social security. When discussing media coverage of 'mudjima crime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not only the appropriateness of the terminology but also the nuances conveyed in the coverage. Through the efforts of the police, the term 'abnormal motive crime' was introduced, and the media has largely accepted it as a more appropriate term. However, it remains unclear whether media reports using 'abnormal motive crime' deliver less provocative and more objective content than those using 'mudjima crime.' This study analyzed the terms used in news articles about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연구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6027028].

\*\* klasdjslk@dongguk.edu, first author

\*\*\* eun661784@gmail.com

\*\*\*\* sentomaru@dongguk.edu, corresponding author

'mudjima crime' through text mining. We collected articles from 1990 to 2023 using the terms 'mudjima crime,' 'indiscriminate crime,' and 'abnormal motive crime' to refer to the phenomenon. After excluding duplicates and articles unsuitable for analysis, 167 articles were analyzed from a total of 316 ('indiscriminate crime' n=19, 'mudjima crime' n=63, 'abnormal motive crime' n=85). We extracted frequently used words for each term and analyzed the content of each articl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erms through bigram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The study found that since the first report of 'mudjima crime' in 2003, both 'indiscriminate crime' and 'abnormal motive crime' have been used, but 'mudjima crime' has remained consistently in use. Keyword analysis revealed that articles about 'indiscriminate crime' and 'abnormal motive crime' mainly focused on local government or police actions, while 'mudjima crime' was used for reports on actual crimes. The findings also revealed a discrepancy between the press's portrayal of "mudjima crime" and its academic and practical definitions. All three terms—'mudjima crime,' 'indiscriminate crime,' and 'abnormal motive crime'—were used for crimes against unspecified individuals, but 'mudjima crime' was primarily used when reporting crimes committed by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Topic modeling confirmed that 'mudjima crime' was often discussed alongside 'indiscriminate crime' and 'abnormal motive crime,' with the news frequently using these terms interchangeably without differentiating between crime types. This study addresses the detrimental effects of using the term 'mudjima crime' in the media and suggests using alternative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Keywords:** abnormal motive crime, mudjima crime, indiscriminate crime, text mining, news big data

## 국문초록

경찰은 '문지마 범죄' 대신 '이상동기 범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지마 범죄'는 법률적·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그 의미가 모호하여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책의 변화에 맞춰 언론 또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문지마 범죄'라는 표현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대중들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치안 수준을 체감하기에 사회 안전감 형성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막중하다. '문지마 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넘어 용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보도의 뉘앙스이다. 경찰조직의 노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바람직한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나, '이상동기 범죄'를 사용한 언론 보도가 '문지마 범죄'를 사용한 언론 보도에 비해 덜 자극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는 '문지마 범죄' 기사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어를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문지마 범죄' 현상을 지칭하는 '문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용어를 기준으로 기사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03년 '문지마 범죄'가 처음으로 보도된 이후 '무차별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도 사용되었으나 최근까지 '문지마 범죄'만 꾸준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분석 결과,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경찰의 범죄 대응 방안이 주를 이루었고, 실질적인 범죄 보도에는 '문지마 범죄'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문지마 범죄' 현상에 대한 학계 및 실무와 기사의 구성개념에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에 관한 범죄에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모두 사용되었으나, ‘묻지마 범죄’는 정신질환자의 범행을 보도할 때 주로 활용되었다. 토픽 모델링 결과, ‘묻지마 범죄’를 중심으로 ‘이상동기 범죄’와 ‘무차별 범죄’가 논의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언론 보도 시 범죄 유형의 구분 없이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를 붙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묻지마 범죄’ 용어의 대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핵심어 :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텍스트마이닝, 뉴스 빅데이터

# 1. 서론

2023년의 대한민국 사회에는 속칭 ‘묻지마 범죄’로 인한 혼란이 대거 초래되었다. 2023년 5월에 발생한 속칭 ‘정유정 사건’을 시작으로 7월의 ‘신림역 칼부림 사건’ 그리고 8월의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강력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배가되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며 동기가 불분명한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모방범죄에 대한 예고 글도 잇따라 올라오며 사회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졌다. 주요 언론사인 월간중앙에서는 ‘묻지마 칼부림’을, 연합뉴스에서는 ‘묻지마 흉기난동’을 2023년의 10대 뉴스로 선정하기도 하였다(김태우, 2023; 황희경, 2023). ‘묻지마 범죄’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평소 가지고 있던 사회나 현실에 대한 불만감, 혐오감 등이 면식이 없는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인파가 집중되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시키고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구조까지도 대대적으로 재편하였다. 현장 경찰관을 증원하기 위해 각급의 행정부서를 통합하였으며,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여 우범지역에서의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수준이 과열되는 경우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묻지마 범죄’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용어를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묻지마 범죄’는 법률적이나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그 의미가 모호하여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윤연정, 2023). 가령, 시비로 촉발된 단순한 폭행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보도한다면 불특정한 동기와 피해자라는 특성만이 각인된다. 대중들은 이 사건을 이해할 때 단순 폭행 사건의 고유한 특징이 아닌 ‘무동기성’이라는 특성만을 받아들이게 되며, 자신이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박지선·최낙범, 2013; 양문승·이훈재, 2008; 정연대·이윤호, 2013; 조호진, 2012; Best, 1999). 2021년, 경찰은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묻지마 범죄’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대부분류 기준으로 범행 당시 합리적 동기 불분명,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무관한 피해자,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 행사를 제시하였다. 2022년에는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묻지마 범죄’ 용어 대신 ‘이상동기 범죄’ 용어 사용을 공식화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통계원료 개선을 추진하였다. 2023년 8월에는 국무총리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상동기 범죄’가 갖는 공식 용어로서의 지위에 힘을 실었다. 2024년에는 경찰청이 주관하여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최초의 공식통계를 발표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

전형성 등으로 개념화하고, 2023년에 발생한 강력범죄 중 총 44건의 사례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였다(정지혜, 2024).

‘이상동기 범죄’가 공식 용어로 규정된 이후 보도지침을 통해 용어 활용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언론에서는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부터 비사법기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 행태이나, ‘묻지마 범죄’ 용어의 자극성을 이유로 언론의 합당한 용어 사용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언론의 보도 행태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가 우리나라의 범죄 보도가 대체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경향을 보여왔음을 지적해왔다(김영은·윤영민, 2024; 김희승, 2016; 김훈순, 2004; 박성호·윤영민, 2016; 박용규, 2001). ‘묻지마 범죄’ 용어 역시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언론에서 주조한 단어로 알려져 있으며, 그 기원으로부터 용어의 타당성과 자극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해 왔다. 범죄를 주제로 하는 여러 기사는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도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 보다 대중의 호기심, 분노, 공포 등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과 내용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김영은·윤영민, 2024). 범죄 현상이 발생하고 여러 언론이 경쟁하듯 범죄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며,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사회에 깊게 뿌리내렸다. 언론에서 만들어 낸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전파되고 학계에서까지 활용되는 학술 용어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중들은 언론의 범죄 보도로부터 치안 수준을 체감한다. 단일한 언론 보도로부터 시민이 객관적인 범죄 수준을 인지하지 못해서는 안 되며, 과장된 범죄 보도로부터 사회적인 범죄 두려움이 증폭되어서도 안 된다. 경찰이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부터 언론 보도가 자극적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범죄 두려움이 증가할 것을 염려하여 ‘이상동기 범죄’라는 공식 용어를 지정한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학계의 의견도 존재한다(윤은호, 2024). 학계 내에서도 ‘이상동기 범죄’ 용어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상동기 범죄’ 용어 사용이 고착화된다면 이 또한 ‘묻지마 범죄’ 현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

더불어 ‘묻지마 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단순한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떠나 용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보도의 뉘앙스이다. 그러나 단순한 용어 변경을 통해 의도한 범죄 두려움의 감소를 이루어 내기는 어려우며, 결국 시민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론 보도의 전반적인 맥락일 것이다. ‘묻지마 범죄’ 용어 사용에 대한 우려로부터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주조했기에 이를 바람직한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나, ‘이상동기 범죄’ 용어를 사용한 언론 보도가 ‘묻지마 범죄’ 용어를 사용한 언론 보도에 비해 덜 선정적이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묻지마 범죄’ 현상이 실제 기사에서 어떤 뉘앙스로 보도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묻지마 범죄’ 용어의 유래에 대해 고찰하였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1920년대부터 1999년까지의 뉴스를 확인하여 ‘묻지마 범죄’가 언론으로부터 어떻게 구조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더불어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묻지마 범죄’ 현상을 지칭하는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용어를 기준으로 기사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사 본문에서 자주 활용되는 용어를 추출하고 용어 활용의 빈도, 용어 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각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묻지마 범죄’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언론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해석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1) 우리나라 범죄보도의 행태

언론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기사의 형태로 보도한다. 언론이 사회 현상을 취재하고 가공해 보도하는 생산 주체라면, 대중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고 평가하는 소비 주체에 해당한다(양영유·이완수, 2020). 모든 사회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중은 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사에 의존하게 된다. 언론 기사의 소비는 곧 언론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해당 언론의 기사에 많은 소비자가 관심 가지면 자연스럽게 기사의 소비량도 증가한다. 따라서 언론은 타 언론보다 신속하게 기사를 작성하여 정보 제공을 독점하려 한다. 때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중 범죄와 관련한 보도는 언론이 생산하는 많은 기사 중에서도 대중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읽는 뉴스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범죄와 관련된 기사는 신문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으며(Surette, 1992), 오늘날 전체 지면에서 적게는 2~5% 많게는 20%가 넘는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박용규, 2001). 범죄를 주제로 한 기사는 1830년대 미국에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대중신문이 등장했을 때부터 성황리에 판매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udson, 1978). 특히, 범죄에 관한 보도는 다른 언론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흥미 중심의 보도가 중점이 되는 범죄보도 전쟁(crime wave)의 성격을 띠었다고 전해진다(Schudson, 2011).

뉴스 소비자들은 범죄를 현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파악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언론이 구

성한 범죄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김홍규, 1986; 김영은·윤영민, 2024). 그 과정에서 범죄 기사는 대중에게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범죄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 또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유우현 외, 2016).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보도에는 늘 선정성과 자극성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며, 대중들의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언론의 과장되고 왜곡된 범죄 보도는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수사나 재판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박용규, 2001). 특히, 범죄 보도는 대중에게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범죄에 관한 인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양이론은 미디어의 현실구성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문화계발이론(cultural cultivation theory)이라고도 불린다(박주애·김승현, 2023). 배양이론에 따르면 언론이 구성하는 보도는 대중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Gerbner, 1969; Gerbner et al., 1986). 대중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범죄 뉴스는 특히 문화계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장르이다(양영유·이원수, 2020). 따라서 언론이 특정 관점에 따라 범죄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우, 대중의 인식도 왜곡되어 형성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범죄의 피해 규모가 크고 그 수법이 잔혹할수록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커지게 된다(이근우, 2012). 이러한 면에서 ‘묻지마 범죄’는 언론의 보도 주제로서 매력성이 탁월하다. 대다수 ‘묻지마 범죄’는 예측 불가능한 강력범죄이며 공공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묻지마 범죄’ 사건 유형의 특징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불안감이 자극되고 이는 언론 기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낸다. 시민들은 언론 보도로부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로써 유발된 시민의 두려움, 분노, 슬픔 등의 감정적 반응은 사회적 반향으로 이어져 제도적 논의에 이른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 현상이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경우 사회의 범죄 두려움은 증폭되며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2023년에도 ‘묻지마 범죄’를 주제로 한 언론 보도의 홍수 속에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포는 시민들의 호신 대란으로 이어졌다. 호신용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부 상품은 품절에 이르렀으며, 주요 손해보험사에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문의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어나기도 하였다(정민하, 2023).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두려움에 대비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 수준이 과열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나라 경찰은 ‘묻지마 범죄’ 언론 보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먼저, 언론 보도에서 ‘묻지마 범죄’보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가 무차별 강력 사건의 본질을 희석하고, 사회에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학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이유이다. 언론 보도의 내용에서 범죄자의 이름, 얼굴, 과거 이력, 진술 등을 공유하는 경우 대중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판단하거나 지나치게 사건에 몰입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언론 보도를 권고하고 있다. 피의자의 개인 사정이 공개되어 대중이 피의자의 범행에 공감하거나, 피의자가 영웅화, 낭만화 되거나 사회구조의 피해자처럼 묘사되는 것 또한 경계한다. 특히, 범행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의 개인 사정에 공감하는 경우 모방범죄 및 범죄 예고글 게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에 관해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상세한 묘사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어 보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 범죄자의 정신상태 및 범행 동기를 추측하는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묻지마 범죄’로 인한 범죄 두려움을 감소하고 자극적인 범죄 보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방범죄에 대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 2) ‘묻지마 범죄’ 용어의 유래

용어는 역사의 흐름, 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현재 쓰이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자 할 때는 그 의미의 변천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도 ‘묻지마 범죄’ 용어의 유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묻지마 범죄’를 주제로 하는 과거의 기사들을 검색하였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1920년대의 기사부터 검색을 제공하기 때문에 용어의 유래를 확인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묻지마 범죄’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묻지마’의 유래를 확인하였다. 검색된 가장 오래된 기사는 1996년 한겨레의 기사였다(강석운·박종생, 1996). 해당 기사의 본문을 통해 ‘묻지마’라는 표현이 1990년대 중반 익명의 남녀가 은밀한 만남을 가지는 현상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묻지마 만남’, ‘묻지마 미팅’, ‘묻지마 해외관광’이라는 용어를 통해 널리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묻지마’라는 표현은 사회면을 넘어 경제면에서까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경제면에서는 1998년부터 ‘묻지마 투자’, ‘묻지마 채권’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해당 용어들은 이유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경제활동을 의미하고 있었다(서화동, 1998). 기존의 ‘묻지마 만남’과 마찬가지로 ‘묻지마 투자’ 역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을 지칭하며,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묻지마 만남’ 등의 용어가 행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정보도 알려고 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묻지마 투자’ 등의 용어는 행위자의 관점에서도 ‘행동의 근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의미로 변했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이 시기부터 ‘묻지마’라는 표현이 오늘날의 ‘묻지마 범죄’의 의미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라는 표현이 강력범죄에 쓰이게 된 것은 2000년대의 일이다. 2000년 한국일보의 기사는 당시 문체시되던 연쇄적인 살인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한창만·정녹용, 2000). 기사 본문 중 ‘중전 사건들과 달리 하나같이 살해 동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이 이미 위험 수준을 넘었음을 나타낸다.’라는 내용을 통해 당시의 ‘묻지마 살인’이 오늘날의 ‘묻지마 범죄’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한겨레의 기사부터이다(서정민, 2003). 해당 기사를 기점으로 ‘묻지마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동기를 설명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무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었으나 그중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가장 범용성 있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기되면서부터 해당 용어의 활용은 급속도로 증가했는데, 2003년에는 20건의 기사에 활용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한 해 동안 89건의 기사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활용되었다. ‘묻지마 범죄’의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2023년에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하여 353건의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sup>

### 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

#### (1) 학술적 정의

학계에서 최초로 ‘묻지마 범죄’를 연구한 논문은 2004년 박순진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2003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대구지하철 참사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정의하였으며 방화행위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처지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며, 동시에 약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대한 양갈음이자 테러 행위로 설명하였다. 다수의 언론기사에서 참사를 ‘묻지마 범죄’로 표현한 것과는 다르게 해당 논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라는 용어로 표하였다. 이후 학계에서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무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었다(Table 1).

학계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범행의 동기와 대상을 기준으로 각 정의가 내포하는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범행의 동기를 중심으로 현상을 설명하였는데, 용어마다 강조하는 측면에 차이가 있다. ‘묻지마 범죄’라고 정의한 연구들은 범행 동기를 증오나 분노 표출과 같이 비합리적이거나 동기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범

1) 빅카인즈(뉴스분석사이트), <https://www.bigkinds.or.kr/>

죄자의 심리적·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여 범죄자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무동기 범죄'의 경우 범죄의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동기가 없다고 정의하여 동기의 불분명성을 강조하였다.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점으로 분류한 연구는 범행의 동기가 임의적 피해자 선정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연구는 박형민(2013)의 “무차별 범죄(Random Crime)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박형민은 기존의 ‘문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라며 ‘무차별 범죄’로 재정의하였다. 그 세부 특징으로 가해자가 사회 또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것이 범행 동기이며, 정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피해자를 임의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외의 학술 연구들에서도 피해자를 ‘불특정인’이라고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특정 이해관계가 없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문지마 범죄’로 분류된 사건 일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와 관계성이 확인된 경우가 존재하므로(이재걸, 2012; 임송학, 2019), 단순히 불특정인으로

Table 1. Various Define About Abnormal Motive Crime

용어	연구	정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박순진 (2004)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김진혁 (2012)	범행의 동기가 그 수행과정이 상식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형태의 비정형적 범죄이며, 주로 분노의 원인을 상공적으로 분포시킬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불특정 다수 중에서 선정해서 그들에게 전가시켜 표출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범죄
문지마 범죄	윤정숙·김민지 (2013)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표출적 폭력범죄
	박지선·최낙범 (2013)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대상의 선택에 있어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이 불특정적이며, 폭력이나 살인 등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적대적인 의도로 저지른 범죄
	최종술 (2016)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이수정 (2018)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아무런 인과관계나 동기가 없이 막연한 적개심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출하는 범죄
이상동기 범죄	고선영 (2012)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특정 이해관계가 없다는 특징과 범죄자의 심리적·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억압된 욕구의 표출로 상황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안상원 (2020)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기존에 알려진 문지마 범죄·무동기 범죄·분노조절장애 범죄·이상 범죄 등을 모두 포함한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
무동기 범죄	김상균 (2009, 2012)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범죄자와 피해자 간에 특정한 이해관계를 찾아볼 수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살인, 강간, 방화 등의 흉악범죄
	윤정숙 외 (2017)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적으로 가해지는 동기 없는 범죄
무차별 범죄	박형민 (201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써 규정하기 보다는 범죄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지마 범죄’를 개념화한 연구들마다 용어와 정의에 차이가 있어 ‘문지마 범죄’의 개념이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실무적 정의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행동과학팀은 실무에서는 처음으로 ‘문지마 범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문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자칫 범죄의 실제 동기가 없는 것처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상동기 범죄’로의 용어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에는 범행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동기이거나 범인의 억압된 욕구의 표출 등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범행 동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비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범죄, 무작위적 피해자 선택, 공공장소에서의 범행, 치사율 높은 무기 사용, 도주 계획 없음의 크게 5가지 기준을 들어 ‘이상동기 범죄’를 정의하였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건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발간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윤정숙 외, 2014)의 연구보고서는 ‘문지마 범죄’ 현상이 범죄 동기가 비정상적이고 범죄자의 망상이나 과잉 일반화에서 기인한다는 특이점도 있지만, 현실 불만이나 자살 욕구, 교도소로의 도피 등이 범죄 동기가 되는 때도 있어 ‘이상동기 범죄’라고 지칭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 활용에 대해 실무기관과 연구기관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던 까닭인지, 당시 ‘이상동기 범죄’는 ‘문지마 범죄’를 대체할 정도의 범용성을 갖지 못하였다. 그 결과, ‘문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에서도 서로 다른 용어가 활용되었다. 2020년 11월 18일에 조경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지마 범죄’에 대해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범죄’로 정의하였으며, 동법률에 대해 2021년 5월 31일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문지마 범죄’에 대해 ‘무차별 범죄’로 규정하였다.

경찰의 ‘문지마 범죄’ 용어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의 시도는 2022년에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문지마 범죄’의 공식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TF를 구성하였다(이정현, 2022). ‘이상동기 범죄’의 분류 기준을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으로 정립하고 KICS에 ‘이상동기 범죄’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에 ‘문지마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용어 활용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면서, ‘이상동기 범죄’로의 용어

대체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졌다. 2023년 8월 16일에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지마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며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이 입법에도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연구설계

#### 1)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 관련 언론 보도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른 내용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및 방송사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 기사 DB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로,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의 뉴스를 검색 및 수집할 수 있다. 빅카인즈에서 수집된 데이터에는 뉴스 일자, 제목, 본문뿐만 아니라 키워드와 가중치 계산을 통해 상위 50개 키워드(특성추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신문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빅카인즈에서 ‘무차별 범죄’, ‘문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세 개의 용어를 키워드로 뉴스 기사를 검색 및 수집하였다. 빅카인즈 DB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발간 일자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하였다. 언론사는 지역일간지 및 주간지, 스포츠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을 제외한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방송사 및 전문지만을 수집하였다. 뉴스 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는 공론장 역할의 대표 종합일간지, 경제지(전문지)만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는 경우가 많다(예. 남희정·류승형, 2020; 최한별 외, 2022). 지역일간지 및 주간지, 스포츠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의 경우 지역 특유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거나, 주제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텍스트 데이터의 대표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포함된 발간지에서 통합분류 및 사건·사고 분류 없이 전체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Table 2). 검색 결과 ‘무차별 범죄’ 69개, ‘문지마 범죄’ 132개, 및 ‘이상동기 범죄’ 316개의 뉴스 기사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기사 중 분석에 사용할 최종 뉴스 기사를 클리닝하였다. 보도자료의 경우 여러 언론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를 중복하여 보도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중복된 내용의 뉴스 기사가 전체 텍스트 데이터에 다수 포함되면, 특정 주제나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빈도분석, 토픽모델링 등 이후 분석 결과가 편향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논의를 거쳐 중복 보고된 뉴스 기사를 추출하고, 동일한 내용의 기사는 한 편만 분석에 포함하고 이 외 뉴스 기사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언론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보도할 때 사용되는 용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도 내용에서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문가의 주관적 인 의견을 다루는 칼럼, 인터뷰 등의 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무차별 범죄' 19개, '묻지마 범죄' 63개, '이상동기 범죄' 85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언론 보도에서 '이상동기 범죄' 관련 용어 사용에 따른 비교가 목적이므로,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변수 중 특성추출(가중치순 상위 50개) 변수와 본문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언론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 '무차별 범죄',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용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용어에 따른 보도 내용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하여 뉴스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자료를 요약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이다.

모든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 R을 사용하였다. 먼저, 수집한 기사 내용에 대하여 전처리 작업을 실시하여 분석에 용이하도록 가공하였다. 특성추출 변수와 본문 변수에 대하여 숫자, 특수문자 및 불용어를 제거하였다. 신문사명, 기자명, 이메일 주소 등의 문구와 같이 뉴스 기사에는 자주 포함되나 범죄 용어에 따른 내용을 비교하는데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였다.

다음으로 KoNLP 패키지를 활용하여 뉴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22개의 형태로 분리하고, 이중 명사, 형용사, 및 동사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명사, 형용사 및 동사 외에 다른 형태소에는 '은', '는'과 같이 조사 등 의미가 없거나 불필요한 단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형용사'와 '동사'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어미가 다를 경우 이후 분석에서 개별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어미를 '~하다'의 형태로 통일하였다. 명사의 경우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와 '성범죄'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개별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단어인 '성범죄'로 통일하였다. 또한 뉴스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해자', '피해자', '검찰', '경찰' 등의 단어는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이후 본격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용어별 뉴스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사 빈도를 확인하였다. 연도별 주요 '이상동기 범죄' 사건과 '이상동기' 용어의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연도별 주요 사

건으로는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2012년)’,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2016년)’, ‘신림역 살인사건(2023년)’, ‘서현역 살인사건(2023년)’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또한 경찰청의 ‘이상동기’ 용어 제정 시점인 2023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뉴스에서 사용된 주요 키워드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워드클라우드 로 시각화하였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경우 상위 빈도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특성추출 변수를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성추출 변수는 각 뉴스 기사에서 가중치 상위 50개 단어에 관한 변수이다. 빅카인즈는 텍스트랭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검색 키워드와 한 문장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러한 방식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50개 단어를 주요 키워드로 제공하고 있다(빅카인즈, 2024). 따라서 각 기사에서 추출된 주요 키워드들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텍스트 데이터 수준에서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위 키워드에 대하여 ggwordcloud 패키지(Le Pennec & Slowikowski, 2024)를 사용해 워드클라우드 로 시각화하였다.

세 번째로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데이터에서 키워드와 다른 단어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엔그램(n-gram) 분석을 실시하였다. 엔그램이란 연이어 사용된 n개의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텍스트를 엔그램으로 분석할 경우 단어들이 연이어 사용됨으로써 생기는 의미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그램(두 개의 연달아 사용된 단어쌍)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엔그램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이를 위해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데이터만을 추출한 뒤 연도별로 엔그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바이그램으로 토큰화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바이그램 빈도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ggraph 패키지(Pedersen, 2024)와 ggplot2 패키지(Wickham, 2014)를 사용하여 바이그램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네 번째로, 각 키워드 기사의 주요 토픽을 살펴보기 위하여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대량의 문서에서 잠재적인 토픽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론을 의미한다(Blei, 2012). 토픽 모델링 방법으로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활용하였다. LDA는 가장 널리 쓰이는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으로, 문서가 몇 개의 토픽으로 구성되며 각 토픽에는 어떠한 핵심 주제(단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는 점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유사하다(Griffiths & Steyvers, 2004).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데이터의 잠재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토픽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각 토픽에서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타당한 모형을 선택하는 절차를 따른다(양혜승, 2022). 본 연구에서는 topicmodels 패키

지(Grün & Hornik, 2011)와 ldatuning 패키지(Nikita, 2016)를 활용하여 토픽의 개수를 바꿔가며 각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파라미터 추정을 위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Gibbs 표집(Gibbs sampl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추정된 토픽 모델 중 최적의 토픽 선택은 ldatuning 패키지(Nikita, 2016)의 FindTopicsNumber 함수를 통해 추출된  $k$  값을 기반으로 모형의 해석 가능성, 타당도, 그리고 연구 문제의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4. 분석 결과

### 1) 연도별 기사의 수

세 용어를 키워드로 하는 뉴스 기사 빈도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Table 2>, <Figure 1>). 최근 20년간 관련 범죄에 대하여 166건의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다. 전체 기사 보도를 시점별로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연간 1편의 기사만이 보도되어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1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련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해당 시점은 ‘2012년 여의도 흥기난동 사건<sup>2)</sup>’이 발생한 때로, 관련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언론에서 주의 깊게 다뤄진 것을 시사한다. 이후 2016년에 다시금 관련 기사의 보도가 증가하였다. 2016년은 ‘2016년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sup>3)</sup>’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된 시점이었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23년은 가장 많은 기사가 보도된 시점으로, ‘신림역 살인사건’과 ‘서현역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상동기 범죄’ 사건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된 시점이다. 종합하면 ‘이상동기 범죄’는 2000년대 초반까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요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는 때에 가장 많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20년간 각 용어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무차별 범죄’는 19건(11.4%)으로 세 용어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도별 빈도를 살펴보면 2004년과 2012년에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가 모두 2023년도에 보도되었다. ‘무차별 범죄’는 언론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2) 2012년 8월 22일 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의 변화가에서 30대 남성이 흥기를 휘둘러 전 직장 동료와 지나가던 행인 등 4명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김지훈, 2012).

3)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흥기를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숨지게 하였다(김민중, 2016).

보도함에 있어 거의 쓰이지 않은 용어로 볼 수 있다.

‘문지마 범죄’는 20년간 63건이 보도되었으며, 전체 기사 중 37.3%를 차지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문지마 범죄’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가 보도되어, 언론에서는 ‘문지마 범죄’ 용어가 꾸준히 쓰여왔음을 알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는 전체 85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였으며, 전체 기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중이었다(51.2%). 전체 기사 중 3편을 제외하고 모두 2023년에 보도되었다. 2023년은 경찰에서 관련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한 시점으로, 2023년도에 ‘이상동기 범죄’ 기사가 급증한 것은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Number of Articles by Year

	'03	'04	'06	'08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전체
무차별 범죄	0	1	0	0	1	0	0	0	0	0	0	0	0	17	19
문지마 범죄	1	0	0	0	7	2	1	4	10	1	2	3	2	30	63
이상동기 범죄	0	0	1	1	1	0	0	0	0	0	0	0	0	82	85
전체	1	1	1	1	9	2	1	4	10	1	2	3	2	129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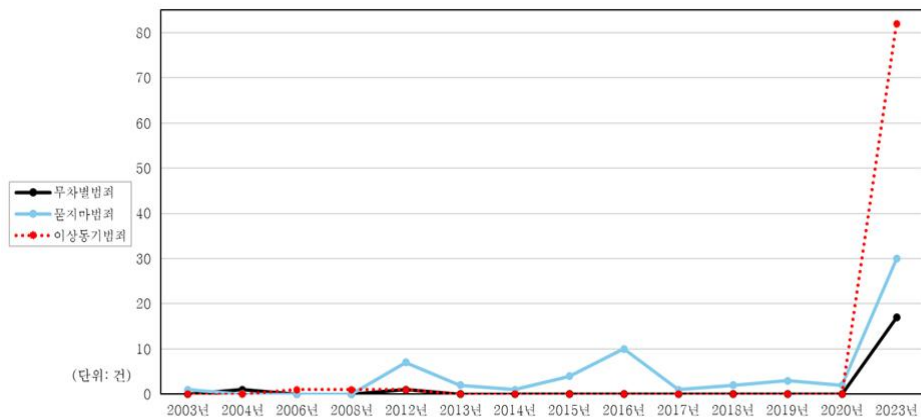


Figure 1. Number of articles by year

2) ‘무차별 범죄’, ‘문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기사별 주요 단어의 빈도 및 워드클라우드  
 ‘무차별 범죄’, ‘문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를 키워드로 검색된 뉴스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위 50개 키워드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Table 3〉, 〈Figure 2〉). 빈도분석 결과, ‘무차별 범죄’에서는 ‘서울시’, ‘관악구’, ‘안심귀



가스카우트' 등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무차별 범죄'에서 '서울시'가 가장 상위 빈도를 기록한 것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무차별 범죄'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대응 요령을 제시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책에 관한 보도 자료로 '무차별 범죄' 용어를 언급하였다. 즉, '무차별 범죄'는 주로 서울시 관련 기관 및 기구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묻지마 범죄'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 '조현병', '신림', '성범죄'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위드클라우드에서는 '사이코패스', '은둔형외톨이', '불안감' 등의 키워드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묻지마 범죄' 기사에서는 주로 범죄의 발생 또는 그 원인을 심리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는 '치안', '방법대', '대응' 등의 단어가 상위 키워드였다. '이상동기 범죄'에서는 주로 '이상동기 범죄'의 대응을 통한 치안 강화를 주요하게 논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드클라우드에서는 '묻지마 범죄'와 유사하게 '정신질환', '불안감' 등의 단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상동기 범죄' 관련 보도에서 치안 강화를 위한 대응 마련을 주로 논의하고 있으나, 발생과 원인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을 주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Table 3. Frequencies of Keyword in Indiscriminate Crimes, Mudjima Crimes, and Abnormal Motives Crime (Top Five)

	무차별 범죄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단어	n	단어	n	단어	n
1	서울시	7	정신질환	26	치안	38
2	관악구	5	범죄자	18	방법대	22
3	안심가스카우트	5	조현병	14	대응	19
4	위원	5	신림	13	위원	18
5	자치구	5	성범죄	12	서현역	17

### 3) 기사 본문에 대한 바이그림 네트워크 그래프

상위 키워드에 대한 빈도분석은 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살펴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본문에 대하여 내용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본문에 대해서는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한 명사, 형용사, 및 동사를 바이그림으로 나누어 연달아 사용된 단어쌍(바이그림)을 살펴보았다. 또한 단어쌍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바이그림 네트워크 그래프로 구성하였다(〈Table 4〉, 〈Figure 3〉).



먼저 ‘무차별 범죄’ 관련 기사에 대한 바이그램의 상위 빈도를 살펴보았다. ‘무차별 범죄-대응’, ‘무차별 범죄-발생’, ‘흉기-휘두르다’, ‘순찰-강화’, ‘불안-해소’ 등의 바이그램이 상위 빈도를 기록하였다. 상위 빈도의 바이그램들을 살펴보면 ‘무차별 범죄’는 주로 ‘무차별 범죄’에 대한 대응이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무차별 범죄’는 서울시와 관련 기관 및 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해당 기관들에서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

‘무차별 범죄’의 경우 앞서 키워드와 유사하게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무차별 범죄 대응’, ‘순찰 강화’, ‘불안 해소’ 등 ‘무차별 범죄’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불안 해소에 대한 맥락이다. 바이그램 네트워크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차별 범죄’ 대응에 관한 단어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있어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순찰-강화-집중’, ‘안전-확보-지키다’, ‘지능형-설치-추가-확대’ 등에 맥락을 이루고 있었다.

‘묻지마 범죄’의 경우 ‘조현병 환자’, ‘불특정 다수’, ‘흉기 난동’ 등이 상위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그램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중증-정신질환-조현병-관리-진단-처벌’ 등이 비교적 중심 노드에 위치하여 ‘묻지마 범죄’ 뉴스기사에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범죄와 많이 연관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강남역 살인-폭행-묻지마’, ‘신림-서현역-관악구-분당-사건-벌어지다’ 등 주요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많이 언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동기 범죄’ 관련 기사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흉기 난동’, ‘이상동기 범죄 예방’, ‘물리력 사용’, ‘신상정보 공개’ 등의 바이그램이 상위 빈도로 보고되었다. 네트워크 그래프 상에서는 ‘범죄-현장-치안-강화-선포’, ‘예방-선제-대응’, ‘국민-안전-확보-최우선-지키다’ 등이 주요 노드로 나타나 범죄로부터 대응책 마련 및 치안 확보가 중요한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Frequencies of Bigram by Articles of Indiscriminate Crimes, Mujjima Crimes, and Abnormal Motives Crime (Top 10)

	무차별 범죄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단어1	단어2	n	단어1	단어2	n	단어1	단어2	n
1	무차별 범죄	대응	9	조현병	환자	32	이상동기 범죄	대응	23
2	무차별 범죄	발생	9	사건	발생	20	흉기	난동	23
3	흉기	휘두르다	7	범행	저지르다	19	이상동기 범죄	예방	19
4	순찰	강화	6	불특정	다수	19	불특정	다수	15
5	공원	등산로	5	흉기	휘두르다	19	신상정보	공개	13
6	기능	강화	5	범죄	저지르다	14	물리력	사용	12
7	불안	해소	5	범행	동기	13	신림	서현역	12
8	추가	설치	5	흉기	난동	13	범죄	발생	11
9	무차별 범죄	예방	4	대책	마련	11	불안감	해소	11
10	방안	논의	4	묻지마	살인	10	서현역	흉기난동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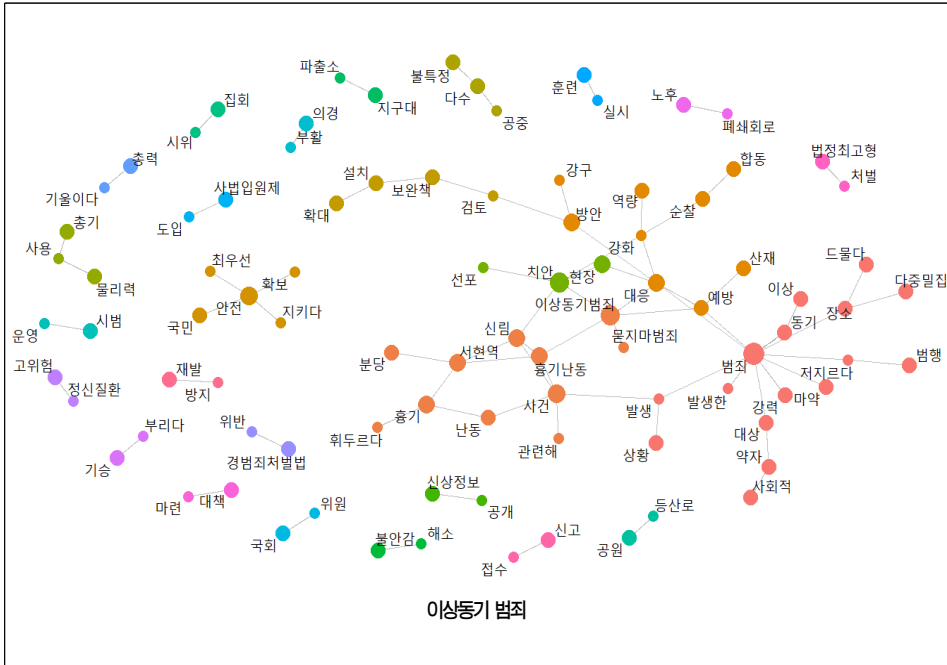


Figure 3. Bigram network graph by terminology

#### 4) 기사 본문에 대한 토픽 모델링

다음으로 각 용어를 사용한 기사에 대하여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토픽의 수와 핵심 주제를 정리하였다(Figure 4)). 먼저 ‘무차별 범죄’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는 4개의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토픽 1은 ‘경찰’, ‘현장’, ‘인력’, ‘치안’ 등의 핵심단어로 구성되어 ‘경찰의 치안 강화’로 명명하였다. 토픽 2는 ‘흥기’, ‘범행’, ‘성폭행’, ‘고립’, ‘가족’, ‘분식’ 등의 핵심단어로 구성되어 ‘무차별 범죄 범행 수법’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3은 ‘안전’, ‘자치구’, ‘순찰’, ‘강화’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자치구 순찰 강화’로 명명하였다. 토픽 4는 ‘의원’, ‘예방’, ‘법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문지마 범죄 법안 마련’으로 명명하였다. 종합하면, 4개의 토픽으로 분류되는 ‘무차별 범죄’ 관련 기사는 ‘문지마 범죄의 범행 수법, 치안 강화 노력, 법안 마련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을 시사한다.

‘문지마 범죄’ 또한 6개의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토픽 1은 ‘조현병’, ‘범죄’, ‘여성’ 등에 관한 핵심단어로 구성되어 ‘문지마 범죄 원인’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2는 ‘경찰’, ‘현장’, ‘정부’, ‘대책’, ‘마련’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경찰 및 정부 대책 마련’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3은 ‘흥기’, ‘여성’, ‘이유’ 등으로 구성되며 ‘문지마 범죄 범행 내용’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4는 ‘정신질환’, ‘정신질환자’, ‘방안’으로 구성되는 내용으로, ‘문지마 범죄와 정신질환’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5는 ‘처벌’,

‘검찰’, ‘범죄’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문지마 범죄와 처벌’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 6은 ‘강력범죄’, ‘예방’, ‘안전’, ‘대응’ 등의 핵심단어로 구성되어 ‘문지마 범죄 예방과 대응’으로 명명하였다. 종합하면, ‘문지마 범죄’를 키워드로 하는 뉴스 기사의 6개 토픽은 ‘문지마 범죄’의 원인, 내용, 처벌과 대응, 그리고 정신질환임을 시사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5개의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토픽 1은 ‘정신질환자’, ‘도입’, ‘문제’, ‘대책’ 등의 핵심단어로 구성되어 ‘문지마 범죄와 정신질환’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2는 ‘훈련’, ‘교육’, ‘실시’, ‘확대’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교육 및 훈련 확대’로 명명하였다. 토픽 3은 ‘경찰’, ‘현장’, ‘대응’, ‘치안’, ‘인력’ 등의 핵심단어로 구성되어 ‘경찰 대응’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4는 ‘흉기’, ‘흉기난동’, ‘서현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문지마 범죄 범행 수법’으로 명명하였으며, ‘안전’, ‘예방’,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토픽 5는 ‘문지마 범죄 예방’으로 명명하였다. 종합하면, ‘이상동기 범죄’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토픽은 ‘문지마 범죄’의 내용, 대응과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구성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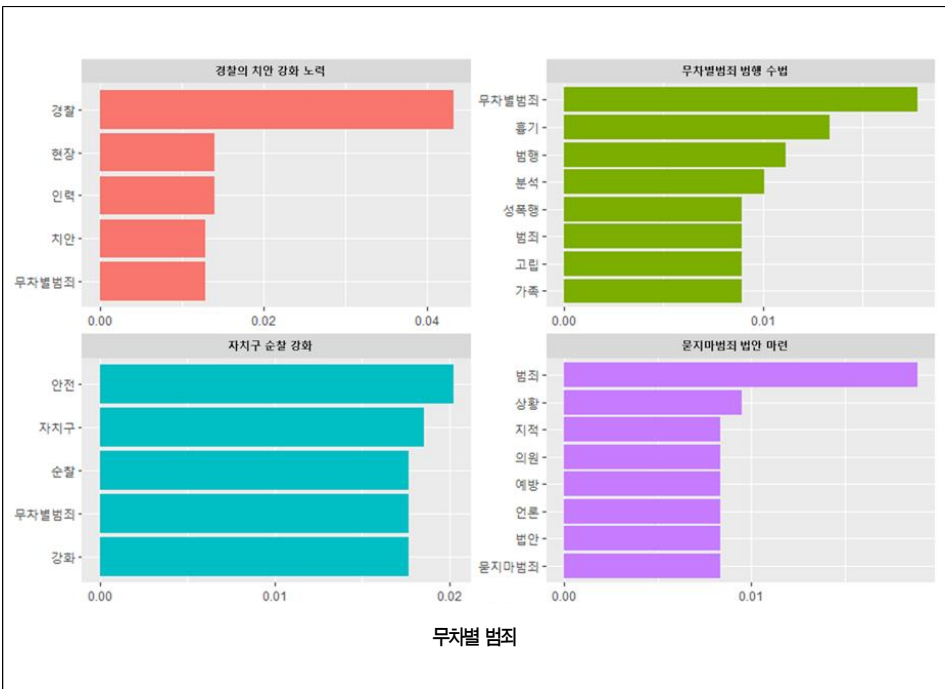




Figure 4. Bigram network graph by terminology

## 5. 결론 및 논의

이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그리고 ‘무차별 범죄’ 뉴스 기사에서 사용된 키워드, 본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도별로 기사를 살펴보면, 2003년 ‘묻지마 범죄’가 등장한 이후, ‘무차별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도 사용되었다가 ‘묻지마 범죄’가 2023년까지도 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에는 경찰이 ‘이상동기 범죄’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그 빈도가 ‘묻지마 범죄’를 넘어섰다. 연도별 기사의 빈도를 살펴보면,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연도의 기사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2년에는 ‘여의도 흥기난동 사건’(류인하·이혜인, 2012), 2016년에는 ‘강남역 살인사건’(헤럴드경제, 2016), 그리고 2023년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기사의 수가 급증하였다. 2020년까지는 대체로 ‘묻지마 범죄’로 해당 범죄들을 지칭하였는데, 2023년에는 ‘이상동기 범죄’와 ‘무차별 범죄’도 다수 사용되었다. 이는 당시 발생한 강력 사건과 더불어 ‘묻지마 범죄’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경찰은 2022년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여 사용했으나(이정현, 2022),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범죄’도 사용된 것은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용어가 합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사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무차별 범죄’에 대한 보도에서는 ‘서울시’, ‘관악구’, ‘안심키가스 카우트’, ‘위원’, ‘자치구’의 5개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관련한 지자체의 대응 방안이 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동기 범죄’도 ‘치안’, ‘방범대’, ‘대응’, ‘위원’, ‘서현역’의 5개 키워드로 확인되어 연이은 강력범죄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에 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묻지마 범죄’는 ‘정신질환’, ‘범죄자’, ‘조현병’, ‘신림’, ‘성범죄’의 5개 키워드로 나타났다. 다른 용어와는 다르게 범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인데, ‘묻지마’가 범죄를 수식하는 용어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문혜민·조은경, 2022).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범죄 보도에는 ‘묻지마 범죄’가 사용되었다는 점도 시사한다. 경찰이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대중들의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킬 것을 염려하여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용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용어 변경이 언론 보도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기사 본문에 대한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모두 사용되었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묻지마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의 핵심 개념이 학계나 경찰 실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계와 실무에서 정신질환의 특징을 담은 용어는 ‘이상동기 범죄’이다. ‘묻지마 범죄’로



지칭된 사건 중 일부가 정신질환자를 포함하지만, ‘문지마 범죄’를 다른 범죄와 차별 짓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사회에 대한 분노 등의 인지적 왜곡이다(윤정숙·김민지, 2013). 반대로, 언론 보도에는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문지마 범죄’가 정신질환인 조현병과 함께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그램 네트워크 그래프(Figure 3)를 살펴보면, ‘문지마 범죄’를 ‘현실 및 사회 불만’보다는 ‘정신질환’에 관한 보도에 적극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대중에게 ‘문지마 범죄’라 불리는 범죄 현상과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자 중 정신장애 범죄자의 비율이 3%(최소: 2012년, 2019년 - 2.1% ~ 최대: 2017년 - 2.8%)에 못 미친다는 점(경찰청, 2022)을 통해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련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문지마 범죄’가 정신장애에 기인한다는 부정적인 논조의 보도나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 병명에 대한 보도는 ‘문지마 범죄’ 가해를 정신질환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식하게끔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문지마 범죄’ 현상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포섭하고 이를 정신질환과 관련된 범죄로 보도하는 행태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청에서 공식화한 ‘이상동기 범죄’로 ‘문지마 범죄’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경찰청은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으로 ‘이상동기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문지마 범죄’의 대안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동기의 이상성은 ‘이상심리에 기틀을 둔 개념으로,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다(고선영, 2012)’. 이 연구의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도 ‘이상동기 범죄’가 정신질환과 관련된 주제로 다수 언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사회 분노나 좌절로 인한 인지적 왜곡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문지마 범죄’나 ‘이상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정신 병력이 없는 유형(예: 현실분만형, 만성분노형 등)과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유형이 구분되어 나타난다(고선영, 2012; 김진혁, 2012; 박지선·최낙범, 2013; 윤정숙·김민지, 2013). 정신장애에 주목하는 ‘이상동기’를 ‘문지마 범죄’의 핵심 개념으로 차용하거나 ‘문지마 범죄’를 보도하는 데 함께 사용한다면<sup>4)</sup>, 정신장애가 ‘문지마 범죄’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지마 범죄’의 전형적 특성을 정신질환 자체보다는, 가족과 또래,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불만을 품고 있는 집단군의 부정적 정념이 극대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문지마 범죄’의 문제

4) 최근에는 ‘문지마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이상동기 범죄(문지마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문지마 범죄’와 같이 두 용어를 함께 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강현석, 2024; 이계형, 2024).

집단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면, 사회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었던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분리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윤은호, 2024).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상동기 범죄'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

기사 본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 '문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기사 본문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문지마 범죄'를 중심으로 '이상동기 범죄'와 '무차별 범죄'가 설명되었다. '무차별 범죄'는 '문지마 범죄'의 범인을 마련함에 있어 '무차별 범죄'로 발의되어 '문지마 범죄'와 함께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동기 범죄'는 '문지마 범죄'와의 관련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문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의 구성개념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문지마 범죄'의 정신질환 가해자를 '동기의 이상성'으로, '문지마 범죄'의 수범을 '행위의 비전형성'이라는 구성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키워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문지마 범죄'가 범죄를 묘사하는 주요 용어로 사용되었고, '무차별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는 '문지마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제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바이그램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세 용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보도하는 데에도 두루 활용되었다. 가령, '무차별 범죄'는 성범죄 보도에도 사용되었고, '문지마 범죄'는 살상, 폭행, 성범죄, 강력범죄 보도에 활용되었으며, '이상동기 범죄'는 마약과 관련하여 보도되기도 하였다. 흉기난동, 살인, 폭행, 성범죄와 같은 다양한 범죄를 '문지마 범죄'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포괄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 양상은 대중들에게 '문지마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흔히 '문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학계와 실무에서 '문지마 범죄'의 정의에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포함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강도·절도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수반한 범죄나 성범죄에도 '문지마 범죄'가 통용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문지마 범죄'를 배타적인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언론 보도나 학술 연구에서 주로 언급한 범죄 유형으로 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지마 범죄'로 흔히 보도된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살인·흉기난동·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잔혹하거나 연쇄적이기보다는 기습적으로 벌어진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범죄와는 구분할 수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문지마 범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여겨지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사회', '사람들' 또는 '자신을 좌절하게 만든 대상' 등을 투사하여 피해자를 선정한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이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한다. 즉, 피해자의 특징보다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에 기인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묻지마 범죄’ 현상의 주된 동기이자 원인은 사회적 좌절과 이로 인한 분노와 인지적 왜곡이다. 그러나 ‘묻지마’라는 표현은 마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주어 가해자의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막연한 범죄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라는 인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 현상의 동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세 용어 중 흔히 알려진 ‘묻지마 범죄’ 현상의 특징을 명료하게 묘사할 수 있는 용어를 확정적으로 제안하기는 어렵다. 추후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하여 경찰을 비롯하여 범죄학, 심리학, 언어학, 언론학 등 다학제간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벌어지는 강력범죄’를 ‘묻지마 범죄’ 현상의 정의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언론에서 ‘묻지마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 사용하는 용어(‘무차별 범죄’,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따라 내용 또는 맥락을 비교하기 위하여 빅카인즈에서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이긴 하나, DB에 저장된 뉴스 기사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사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검색일자를 1990년 1월 1일부터로 설정하였으나, 2003년 기사부터 수집된 것은 이러한 자료수집 방법에서 기인하였을 수 있다. 2003년부터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강력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2023년도에 ‘묻지마 범죄’ 현상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여 실질적으로 2023년의 기사가 가장 많이 포함되었고, 분석 결과도 최근 사건에 치중하여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지난 20년간의 언론 보도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은 분명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직접 수집 또는 크롤링을 통해 더 넓은 기간과 범위에서 신문 기사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실체적인 담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상을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는 용어는 자연스레 다른 용어로 대체되기 마련이다. 심지어, 현상을 왜곡하는 용어라면 필연적으로 대체할 용어를 모색하기 마련이다. 한 예로서, ‘자녀와의 동반자살’은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대체되었다.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한 결정임에도 ‘자녀와의 동반자살’이 자녀의 능동적인 결정이 있는 것처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해당 현상에 대해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동반자살’은 사장되는 추세이다. 과거 헤어진 연인의 동의 없이 촬영 및 배포된 동영상상을 뜻하는 ‘리벤지 포르노’도 한 예이다. 리벤지(revenge, 복수)라는 말 자체가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귀책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현재는 ‘디지

털 성폭력' 또는 '불법촬영물'로 대체되었다(홍성일, 2018). 경찰이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꾸준히 장려하고 있음에도 '묻지마 범죄'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은 해당 용어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공감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경찰이 장려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묻지마 범죄'를 대체할 만큼 사회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범죄 기사로부터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왜곡도 감소할 것이라 기대한다.

## References

- An, S. W. (2020). A study on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abnormal motive criminal.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6(2), 177-199. [안상원 (2020).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6권 2호, 177-199.]
- Best, J. (1999). *Random violence: How we talk about new crimes and new victim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ig Kinds (2024). *Big Kinds user's manual*. Korea Press Foundation. [빅카인즈 (2024).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한국언론진흥재단.]
-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 Choi, H. B., Jeong, Y. H., & Kim, S. C. (2022). A text mining analysis of information privacy agenda : Focusing on news big data from 1990 to 2021. *Information Society & Media*, 23(2), 69-113. [최한별·정윤혁·김성철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보 프라이버시 의제 분석: 1990~2021년 뉴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3권 2호, 69-113.]
- Choi, J. S. (2016). The study on case analysis and solutions for motiveless crime.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6(2), 127-156. [최종술 (2016). 묻지마 범죄의 사례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6권 2호, 127-156.]
- Gerbner, G. (1969). Toward “cultural indicators”: The analysis of mass mediated public message system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17(2), 137-148.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6). *Living with television: The dynamics of the cultivation process*. In J. Bryant & D. Zillman (Ed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pp. 17-40). Erlbaum.
- Go, S. Y. (2012). Profiling : Temper and feature of Korean nonspecific criminal - Focused on unspecific victims and indiscriminate violence.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1(4), 3-28. [고선영 (2012). 이상동기 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권 4호, 3-28.]
- Griffiths, T. L., & Steyvers, M.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1(suppl\_1), 5228-5235.
- Grün, B., & Hornik, K. (2011). Topicmodels: An R package for fitting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0(13), 1-30.

- Han, C., & Jeong, N. (2000, April 26). “Undiscriminatory murder” is crazy. Hankook Ilbo.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004260072324391> [한창만·정녹용 (2000, 4, 26). ‘묻지마 살인’ 광풍. <한국일보>.]
- Herald Corp. (2016, May 18). “It was because women ignored me”... Indiscriminately killed a woman in her 20s at Gangnam Station. Herald Business Daily.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18000128> [헤럴드경제 (2016, 5, 18). “여자들이 날 무시해서 그랬다”...강남역 ‘20대 여성 묻지마 살인’ 30대 남성. <헤럴드경제>.]
- Hong, S. I. (2018, October 4). Women who became ‘XX girls’...It’s not ‘revenge pornography,’ but ‘digital sexual violence’. Global Economic. [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18/10/201810041342093893fd6d10edd2\\_1](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18/10/201810041342093893fd6d10edd2_1) [홍성일 (2018, 10, 4). ‘XX녀’가 된 여성들...‘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디지털 성폭력’. <글로벌이코노믹>.]
- Hwang, H. K. (2023, December 15). Top 10 domestic news selected by Yonhap News. Yonhap 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3167000005> [황희경 (2023, 12, 15). [2023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뉴스. <연합뉴스>.]
- Jeong, J. H. (2024, February 6). Police “A total of 44 abnormal crimes of the same age over 2023”. Segye Ilbo.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06515446> [정지혜 (2024, 2, 6). [단독] 경찰 “2023년 이상동기 범죄 총 44건”. <세계일보>.]
- Jeong, M. H. (2023, August 28). Do you have insurance to protect me from “Don’t Ask Crime”? Chosun Biz.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8/28/BHNJFN6RSFC2ZNR0ODP77TNQOQ/> [정민하 (2023, 8, 28). [금융포커스] ‘묻지마 범죄’서 나를 지켜줄 보험 있나요? <조선비즈>.]
- Jo, H. J. (2012, September 4). “Nine out of ten, I think ‘I can get into indiscriminatory crimes’”. Chosun Ilbo.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4/2012090401028.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4/2012090401028.html) [조호진 (2012, 9, 4). “열에 아홉, ‘나도 묻지마 범죄에 당할 수 있다’고 생각”. <조선일보>.]
- Jung, Y. D., & Lee, Y. H. (2013). Social construction and influence of “don’t-ask-me” crime discourse : Alternative perspectives on motiveless crime.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2(1), 213-246. [정연대·이윤호 (2013). 묻지마 범죄 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영향. <한국경찰연구>, 12권 1호, 213-246.]
- Kang, H. S. (2024, October 16). Prevent ‘mudjima crime’ and support victims...Jeonnam provincial council to promote related ordinances. The Kyunghyang Shinmun.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61146001> [강현석 (2024, 10, 16). ‘묻지마 범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전남도의회, 관련 조례 추진. <경향신문>.]

- Kang, S. W., & Park, J. S. (1996, October 30). ‘Don’t ask’ dig into social psychology. Hankyoreh.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610300028911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10-30&officeId=00028&pageNo=11&printNo=2713&publishType=0010> [강석운·박종생 (1996, 10, 30). ‘묻지마’ 사회심리학을 캔다. <한겨레>.]
- Kim, H. K. (1986). A study on criminal articl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21, 117-138. [김흥규 (1986). 범죄기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1호, 117-138.]
- Kim, H. S. (2004). Gender frames of Korean newspapers: Women in crime new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35, 63-91.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뉴스와 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35호, 63-91.]
- Kim, H. S. (2016). The prevalence and causes of gory, grotesque, and sensationalized crime coverage. *Kwanhun Journal*, 138, 63-39. [김희승 (2016). 잔혹, 엽기, 선정성에 노출된 범죄보도 실태와 원인. <관훈저널>, 138호, 63-69.]
- Kim, J. H. (2012). Type of random crime and countermeasure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8(3), 113-131. [김진혁 (2012). 묻지마 범죄의 유형 및 대응 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권 3호, 113-131.]
- Kim, J. H. (2012, August 22). Yeouido stabbing “I was only used and kicked out of the company”. Hankyoreh.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8333.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8333.html) [김지훈 (2012, 8, 22). 여의도 칼부림 “이용만 당하고 회사 쫓겨났다”. <한겨레>.]
- Kim, M. (2016, May 26). Police investigation concluded with ‘Gangnam toilet murder’...“undiscriminatory crime”. Money Today.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52522240319928> [김민중 (2016, 5, 26). ‘강남 화장실 살인’ 경찰수사 마무리...“묻지마 범죄” 최종 결론. <머니투데이>.]
- Kim, S. (2009). The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motiveless violent crimes by police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1(3), 5-32. [김상균 (2009).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권 3호, 5-32.]
- Kim, S. G. (2012). The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motiveless crimes. *The Police Science Journal*, 7(2), 193-219. [김상균 (2012). 무동기범죄의 실패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7권 2호, 193-219.]
- Kim, T. W. (2023, November 17). The top 10 events of 2023 looking back in pictures. The JoongAng.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8759> [김태욱 (2023, 11, 17). 사진으로 돌아본 2023년 10대 사건. <월간중앙>.]

- Kim, Y. E., & Yoon, Y. M. (2024). Frames of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a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the damages judgement due to the press coverage on the sexual assault in 2014.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68(1), 269-306. [김영은·윤영민 (2024). 여성 대상 범죄 보도 프레임 : 2014년 성폭행 사건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전후의 비교. <한국언론학보>, 68권 1호, 269-306.]
- Korea Press Foundation (2019). *Media users in Korea 2019* (Survey Analysis 2019-01).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2019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조사분석 2019-01).]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22). *Police statistical year book 2022*. [경찰청 (2022). <경찰통계연보>.]
- Le Pennec, E., & Slowikowski, K. (2024). *ggwordcloud: A word cloud geom for ggplot2 (Version 0.6.2)*.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ggwordcloud/vignettes/ggwordcloud.html>
- Lee, J. H. (2022, January 19). The official term for ‘undiscriminatory crime’ is an abnormal crime...The police have formed a response TF. Yonhap 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807920004?input=1195m> [이정현 (2022, 1, 19). ‘묻지마 범죄’ 공식용어는 이상동기 범죄...경찰, 대응TF 구성. <연합뉴스>.]
- Lee, J. H. (2024, October 11). Mudjima crime prevention, metropolitan lead the way. Naeil News. <https://www.naeil.com/news/read/525385?ref=naver> [이제형 (2024, 10, 11). 묻지마 범죄 예방, 자치경찰이 앞장선다. <내일신문>.]
- Lee, J. K. (2012, August 24). [What’s wrong with Yeouido’s stabbing?] Competition and poverty... “Planning to kill six people”. Hankyoreh.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6/0002121974?s\\_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6/0002121974?s_id=102) [이재걸 (2012, 8, 24).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왜?] 경쟁·빈곤이 분노로 ... “6명 살해계획”. <한겨레>.]
- Lee, K. W. (2012). Some problems of the crime reports in Korea. *Gachon Law Review*, 5(3), 137-162. [이근우 (2012). 우리나라 범죄보도의 문제점. <가천법학>, 5권 3호, 137-162.]
- Lee, S. J. (2018).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motiveless crime offenders and effective treatment plans for the offenders : Using big-data analysis on the public perspective.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8(4), 99-118. [이수정 (2018). 묻지마 범죄자들의 특성과 적절한 처우 집행을 위한 제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중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8권 4호, 99-118.]
- Lim, S. H. (2019, February 27). A man in his 20s was sentenced to heavy punishment for indiscriminately assaulting his ex-girlfriend for resembling him. Seoul Shinmun.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190227500149&wlog\_tag3=naver [임송학 (2019, 2, 27). 헤어진 여친 닳았다  
묻지마 폭행 20대 증형. <서울신문>.]

- Moon, H. M., & Jo, E. K. (2022). Conceptual nature of the ‘motiveless crime’ in Korea.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16(1), 143-165. [문혜민·조은경 (2022). 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한국범죄학>, 16권 1호, 143-165.]
- Nahm, H. J., & Ryu, S. H. (2020). Text-mining analyses of news articles on schizophrenia. *Korean Journal of Schizophrenia Research*, 23(2), 58-64. [남희정·류승형 (2020). 조현병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대한조현병학회지>, 23권 2호, 58-64.]
- Nikita, M. (2016). *Package ‘ldatuning’*.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ldatuning/ldatuning.pdf>
- Park, H. (2013). Concept and features of random crime: Crimes against random people.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2(1), 225-258. [박형민 (2013). 무차별 범죄(Random Crime)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권 1호, 225-258.]
- Park, J. A., & Kim, S. H. (2023). Effects on perception of the police from media: Focusing on the type of media.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32(1), 127-152. [박주애·김승현 (2023).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 연구: 미디어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권 1호, 127-152.]
- Park, J. S., & Choi, N. B. (2013).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nonspecific motive crim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4(3), 107-124. [박지선·최낙범 (2013). 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법>, 4권 3호, 107-124.]
- Park, S. H., & Yoon, Y. M. (2016). News quality of reporting on investigation and trial : A study on accuracy, depth, and impartiality of broadcasting new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0(4), 83-120. [박성호·윤영민 (2016). 방송 법조뉴스의 품질 연구: 정확성, 심층성, 불편부당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보>, 30권 4호, 83-120.]
- Park, S. J. (2004). A study on the social sources of stranger violence against multiple victims.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17, 205-236. [박순진 (2004).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권, 205-236.]
- Park, Y. G. (2001). A study on the history of newspaper crime reports in Korea: Focusing on a content analysis of crime n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45(2), 156-185. [박용규 (2001).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보>, 45권 2호, 156-185.]

- Pedersen, T. L. (2024). *Package 'ggraph'*. <https://mirror.uned.ac.cr/cran/web/packages/ggraph/ggraph.pdf>
- Ryu, I. H., & Lee, H. I. (2012, August 23). A knife rampage on the way home from Yeouido... I retired because I was vindictive of the gossip. "I was going to die, but I decided to retaliate because I felt unfair". The Kyunghyang Shinmun.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208222314565> [류인하·이혜인 (2012, 8, 23). 여의도 퇴근길 흉기 난동... 험담에 앙심 품고 퇴직 "죽으려 했는데 억울해 보복 결심". <경향신문>.]
-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 Basic Books. [박경우·여은호 (역) (2019). <뉴스의 발견: 미국 신문의 사회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Schudson, M. (2011). *The sociology of news* (2nd ed.). W. W. Norton. [이강형 (역) (2014). <뉴스의 사회학>. 한국언론진흥재단.]
- Seo, H. D. (1998, December 11). 'Undiscriminatory investment' will join the middle-aged women's unit. The Kyunghyang Shinmun.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8121100329110006&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8-12-11&officeId=00032&pageNo=10&printNo=16615&publishType=00010> [서화동 (1998, 12, 11). 아줌마부대 가세 '물지마 투자'. <경향신문>.]
- Seo, J. M. (2003, February 18). 'Undiscriminatory crime' increases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Hankyoreh.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0010623?sid=110> [서정민 (2003, 2, 18). [화재]불특정 다수 겨냥 '물지마 범죄' 늘어. <한겨레>.]
- Surette, R. (1992). *Media, crime, and criminal justice: Images and realities* (pp. 121-123).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Wickham, H. (2014). *Package 'ggplot2'*.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ggplot2/ggplot2.pdf>
- Yang, H. S. (2022). A text mining analysis on hate comments targeted at women, immigrants, and the elderly: In the context of Naver crime new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6(3), 5-45. [양혜승 (2022). 여성, 이주민, 노인 혐오성 댓글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네이버 범죄뉴스를 맥락으로. <한국방송학보>, 36권 3호, 5-45.]
- Yang, M. S., & Lee, H. J. (2008). The present status of hate crime and theocratical consideration on its causes. *Journal of Law Research*, 24(4), 167-200. [양문승·이훈재 (2008).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원광법학>, 24권 4호, 167-200.]
- Yang, Y. Y., & Lee, W. S. (2020). What's the problem with the Korean media's crime reporting? :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porters and crime news monito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 Information*, 104, 44-83. [양영유·이완수 (2020).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 사건기자와 범죄뉴스 모니터 집단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언론정보학보>, 104권, 44-83.]
- Yoo, W., Chung, Y., & Jung, J. (2016). Influences of news violence on children's emotion and judgment: Investigating the mediating role of fright reac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60(1), 42-67. [유우현·정용국·정지희 (2016). 폭력 범죄 보도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정서적 및 인지적 영향.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42-67.]
- Yoon, E. H. (2024). Are 'abnormally motivated crime' appropriate?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7(1), 193-222. [윤은호 (2024). '이상동기범죄'는 올바른가? <인권연구>, 7권 1호, 193-222.]
- Yoon, J. S., Kim, J. H., & Park, E. Y. (2017). *Treating unmotivated crime offenders: criminogenic factor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윤정숙·김재현·박은영 (2017).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Yoon, J. S., Park, J. S., Ahn, S. H., & Kim, M. J. (2014).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ation toward stranger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 (2014). <문자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Yoon, J., & Kim, M. (2013). Understanding so called 'Do-not-ask Crim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9(1), 147-174. [윤정숙·김민지 (2013). 문자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권 1호, 147-174.]
- Yoon, Y. (2023, July 26). 'Undiscriminatory crimes' in 5 years...Only when it occurs, the countermeasure is 'blank'. Hankyoreh.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1726.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1726.html) [윤연정 (2023, 7, 26). '무차별 범죄' 5년간 270건...발생 때만 회들짝, 대책은 '빈칸'. <한겨레>.]

최초 투고일 2024년 08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1월 14일  
 논문 수정일 2025년 01월 20일